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A Study on the Allocation of Housewife's Time for Housework and Leisure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洪 成 姬

Dept. of Home Management

Kei Myung Univeristy

Assistant Prof. : Sung Hee, Hong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llocation of time for housework and leisure, an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satisfaction and all variables affecting it. For this purpo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hose respondnet were 448 housewiv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housework time was affected by the number of family member, the age of wife and income. And leisure time was affected by the work status and age of wif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The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were affected by the wife's work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2) The relation between housework time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was negative. And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and time plann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were positive.

3) Among all variables affct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the educational level, income, time plann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leisure time had direct effect. And the work status had indirect effect.

I. 문제의 제기

시간은 화폐, 에너지, 기술 등의 자원이 사용될 때 함께 사용되는 결합자원으로 모든 자원의 상호관계는 대부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의 관리에는 시간이 관련된다는 통합적 개념하에서 시간자원을 중심적 자원으로 취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와 이로 인한 역할요구의 확대, 그리고 생활의 복잡화로 희소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부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시간에 집중되어 왔고, 최근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요구가 생겨남으로써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가사노동은 그 수행방식이 변화했다고 하나, 일차적 책임과 수행은 지속적으로 주부에게 일임되어 왔으며 이는 단지 절대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던 가시적 노동으로부터 노동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비가시적 노동으로서 외형상의 변화에 불과하다(이승미, 1989). 한편 주부의 여가시간은 가사노동 수행에 의해 단기적으로 분할되며, 감소·희생되는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은 주부개인의 특성이나 관리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개인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가사노동시간 또는 여가시간중 한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들의 관련성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자원의 유한성에 따라 여러 활동에 대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시간배분적 관점에서 가사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가정관리는 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사용가능한 자원을 투입하여 계획 및 수행의 변환과정을 거쳐 산출로 나타나는 체계이다. 가사노동 및 여가에 대한 시간 배분은 주부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요구와 자원에 의해 시간관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생활만족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에 대한 배분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각 요소간의 관련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관리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와 변환과정인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의 산출결과인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배분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만족도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함으로써 주부의 관리만족도와 가족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간사용 및 시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

가사노동과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은 전반적인 가족자원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부들은 시간자원을 개인으로서의 생리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그리고 가정관리자로서 가사노동에 적절히 배분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때 가정의 복잡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린 자녀로 인해 가사노동량이 많거나 취업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시간적 제약을 느끼는 상황을 투입요소중 관리행동을 필요로 하는 요구변수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가사노동의 수행방식과 시간 등을 결정해 주는데, 주부의 교육수준이나 가사노동을 분담해 줄 수 있는 가족원의 수와 같은 인적자원 외에 가사노동의 기계화나 상품화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설비 및 가정소득도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자원이다.

계획은 행동의 각 단계에서 시간낭비와 갈등을 제거해주므로 계획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활동에 대해 시간배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수행은 계획안을 행동화하는 것인데, 계획단계에서 설정한 계획안이나 구체적인 표준, 행동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가사분담, 가사노동의 책임감소,

수행표준조정 등의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감소 및 여가시간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변환과정을 통해 투입되었던 자원은 감소 또는 변형되며, 그 결과 가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 자원의 변화는 처음 사용한 자원의 양과 산출결과 나타난 양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며(Newton, 1984), 요구의 충족 및 만족 정도는 결혼만족도, 관리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다(두경자, 1990; 이연숙외, 1991). 그러므로, 시간배분체계에서 산출은 시간배분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자원이 변환과정을 통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얼마나 배분되었는가의 변화상태로 나타나며, 또 원하는 시간배분을 위해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만족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의 구성요소인 투입, 변환, 산출의 관계를 시간배분과정에 적용시켜 가사노동 및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요구하거나 가사노동수행에 자원으로 작용하는 가족수, 주부연령, 학력, 취업유무, 총소득을 투입변수로,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을 변환과정변수로,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과 관리만족도를 산출변수로 설정하였다.

2.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체계의 구조

1) 투입과 변환과정의 관계

(1) 투입과 시간계획

시간계획은 우선순위 정하기, 스케줄 작성, 활동조직 등으로 구체화된다. 투입과 시간계획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연숙(1983)은 연령이 적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며 계획의 융통성이 크다고 한 반면, Wetters(1967)는 주부의 연령과 관리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연령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교육수준은 계획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알 수 있다. 또 소득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Huguley(1976)는 충분한

소득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다.

(2) 투입과 시간관리전략

시간관리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결과 연령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주부들이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조성은, 1990), 20대의 주부들은 자녀양육에 가족원의 분담을 필요로 하며, 50대의 주부들은 성장한 자녀들의 가사분담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이 낮으며(이승미, 1989)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조성은, 1990). 즉 주부의 취업은 시간제약을 유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표준의 조절을 유도하거나 증가된 소득으로 가사노동 대체제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수는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나 이승미(1989)의 연구에서 전문직 주부는 시모나 친정모의 조력을, 비전문직 주부는 자녀의 조력을 통해 가사를 분담하는 시간관리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0).

이상에서 투입과 변환과정의 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입요소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가사노동 및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상태가 달라지며, 이를 매개로 하는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에도 차이가 있다.

2) 투입과 산출의 관계

(1) 투입과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투입요소와 산출변수인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그리고 관리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결과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족수 및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소득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부의 연령 및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였으며(이정수, 1984; 한경미, 1989; Walker & Wood, 1976), Nickols등(1983)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며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시간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에 강한 부적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으며 여가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Gronau, 1976).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이 가족원의 보살핌, 관리적인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한경미, 1987; Walker & Woods, 1976) 광범위한 가사노동의 영역중 관리적인 것과 단순한 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한편 여가시간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애, 1985; 한경미 등, 1990; Gronau, 1976).

주부의 취업은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취업주부는 우선적으로 취업에 일정한 시간을 배분해야 하므로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지거나 시간자원을 화폐자원으로 대체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시킬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부의 취업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상관을 보이는(Walker & Woods, 1976; Hall & Schroeder, 1970; 이정수, 1984; 조성은, 1990)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며, Gronau(197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은 비취업주부에 비해 적었다.

가족의 총소득, 자산 등 경제적 요인은 가족원의 노동 및 여가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Gronau, 1977). 가계소득은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간을 감소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며(Nickols등, 1978; 한경미, 1987),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결과를 통해 높은 가계소득은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은 관련이 없거나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임정빈, 1981; Walker

등, 1976). 한편 여가시간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애, 1985; 한경미 등, 1990).

(2) 투입과 관리만족도

관리행동의 산출중 요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인 관리만족도는 계획과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주관적인 충족감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가사노동, 여가, 가계지출, 가족관계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Newton, 1984; 두경자, 1990; 최호숙, 1991).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이종숙(1989)의 연구에서 형성기에 비해 확대기에 있는 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는 비취업주부일때, 가족수가 적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관리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또 김재경(199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성기일때, 전문직에 종사할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홍성희(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투입변수들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투입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변환과정과 산출과의 관계

관리과정과 산출과의 관계를 다룬 조성은(1990)의 연구에서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관리전략중 분담화, 기계화, 사회화, 수행표준의 조정, 수행방식의 효율화는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나 여가 및 수면시간 분배의 조정은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들은 시간제약을 해소시키기 위해 외식, 편의품, 자녀양육서비스 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ckols 등, 1983; Bellante, 1984). 따라서 다양한 시간관리전략을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한편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여가시간의 감소는 가사노동시간을 보완시키는 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 생활에 더 만족하며

관리행동은 관리만족도와 매우 높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1984). 이연숙(1983)은 계획, 목표설정, 표준의 변경과 시간관리전략들이 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상순(1978)도 주부의 관리능력과 가정의 행복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변환과정변수에 따라 산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과 그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 경감 및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의 활용실태 등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론적 관점에서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즉, 투입변수로는 주부의 연령·교육수준·취업유무와 가족수·총소득을, 과정변수로는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을, 산출로는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과 관리만족도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부들의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은 투입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관리만족도는 투입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관리만족도는 과정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4〉 관리만족도와 관련 제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설문지중 시간계획은 일상생활 영위 및 가사노동 수행, 가계운영을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경미(1991), 두경자(1990)의 연구를 참고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0.722였다. 한편 시간관리전략은 가사노동의 기계화, 분담화, 상품화, 수행표준의 조정, 여가 및 수면시간 조정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수행표준 조정과 여가 및 수면시간 조정 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0.738, 0.700이었다.

산출변수중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의 하루 24시간을 수면, 가사노동, 여가, 취업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한 개방형의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관리만족도는 두경자(1990), 홍성희(1990), 최호숙(1991)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814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며, 1명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3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후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600부중 448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PC+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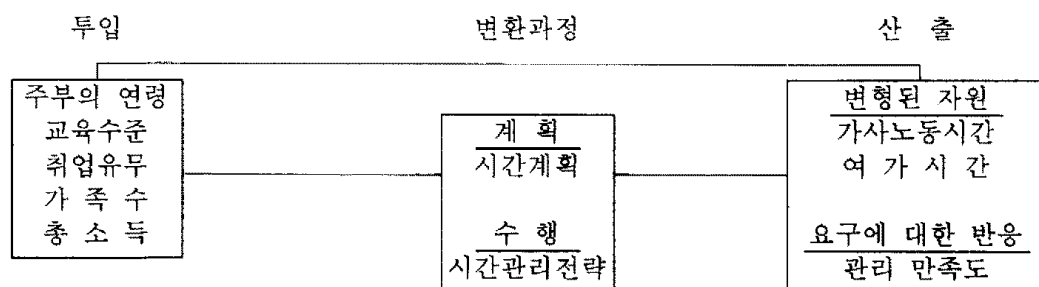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중 가족수는 4명이 43.5%, 5명이 28.3%로 4~5명이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주부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약 78%이고, 비취업주부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총소득은 100~150만원, 200~300만원, 150~200만원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사대상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은 최저 60분에서 최고 985.7분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390.8분을 소비하고 있었다. 또한 여가시간은 최저 0시간에서 최고 758.5분까지 분포되며 평균 236.7분으로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 4시간으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2. 투입변수에 따른 변환과정 변수

1) 투입변수에 따른 시간계획

투입변수에 따라 시간계획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시간계획은 가족수, 주부연령등 인구학적 요인과 주부 자신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간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행동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 이연숙(198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150만원이상인 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시간계획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300만원이상의 소득집단은 타집단보다 월등히 시간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소득이 있을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용이하다고 한 Hugley(197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 투입변수에 따른 시간관리전략

시간관리 전략은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투입

표 1. 투입변수에 따른 시간계획

(N=448)

변 수	집 단	평 균	T 값	
취업유무	비 취업	3.49	-0.37	
	취 업	3.52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MR
가 족 수	3명 이하	3.61	0.56	A
	4명	3.48		A
	5명	3.49		A
	6명 이상	3.51		A
주부연령	30대 이하	3.47	0.39	A
	40대	3.53		A
	50대 이상	3.50		A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2	9.69***	B
	고졸	3.47		B
	대졸 이상	3.67		A
총 소 득	100만원 미만	3.30	4.79***	C
	100-150만원 미만	3.40		BC
	150-200만원 미만	3.57		B
	200-300만원 미만	3.50		BC
	300만원 이상	3.74		A

***P<.001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가족수가 많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가족수가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많은 가사노동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간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성은(1991)의 연구에서 20대 주부들이 시간관리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시간관리전략 하위영역의 구성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해 시간관리전략을 월등히 적게 사용하였다. 이는 시간관리전략중 기계화, 사회화에는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200~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증가에 따른 시간관리전략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가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취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및 시간제약을 시간관리전략을 통해 해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부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관리행동에 대한 요구에 따라 시간관리전략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투입변수에 따른 산출변수

1) 투입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은 가족수, 주부연령, 총소득, 취업유무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3). 즉 가족수가 6명 이상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월등히 많고 3명 이하인 경우 매우 적었으며, 또 30대 이하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게 나타남으로써, 어린 자녀의 존재가 가사노동시간을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월등히 적게 나타남으로써 취업이 가사노동시간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Walker & Woods, 1976 ; Hall & Schroeder, 1970 ; 이정수,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2. 투입변수에 따른 시간관리전략

(N=448)

변 수	집 단	평 균	T 값	
취업유무	비 취업	2.39	-3.64***	
	취 업	2.51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MR
가 족 수	3명 이하	2.35	5.12**	C
	4명	2.39		BC
	5명	2.45		AB
	6명 이상	2.54		A
주부연령	30대 이하	2.36	8.86***	C
	40대	2.45		B
	50대 이상	2.54		A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5	0.38	A
	고졸	2.42		A
	대졸 이상	2.42		A
총 소 득	100만원 미만	2.32	2.85*	B
	100-150만원 미만	2.42		A
	150-200만원 미만	2.40		AB
	200-300만원 미만	2.48		A
	300만원 이상	2.45		A

*P<.05 **P<.01 ***P<.001

표 3. 투입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N=448)

변 수	집 단	평 균	T 값	
취업유무	비 취업	443.42	11.36***	
	취 업	282.59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MR
가 족 수	3명 이하	349.16	3.13*	B
	4명	390.62		AB
	5명	380.89		B
	6명 이상	439.04		A
주부연령	30대 이하	438.00	12.04***	A
	40대	356.70		B
	50대 이상	366.11		B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0.28	2.67	B
	고졸	408.81		A
	대졸 이상	386.51		AB
총 소 득	100만원 미만	394.70	2.85*	AB
	100-150만원 미만	424.65		A
	150-200만원 미만	399.16		AB
	200-300만원 미만	370.11		AB
	300만원 이상	351.71		B

*P<.05 **P<.001

표 4. 투입변수에 따른 여가시간

(N=448)

변 수	집 단	평 균	T 값	
취업유무	비 취업	293.42	15.67***	
	취 업	121.71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MR
가 족 수	3명 이하	209.49	1.00	A
	4명	248.53		A
	5명	229.88		A
	6명 이상	237.01		A
주부연령	30대 이하	207.68	5.65**	B
	40대	252.01		A
	50대 이상	270.14		A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2.90	7.17**	B
	고졸	233.85		A
	대졸 이상	268.41		A
총 소 득	100만원 미만	193.68	2.42*	B
	100-150만원 미만	217.91		AB
	150-200만원 미만	250.32		A
	200-300만원 미만	251.49		A
	300만원 이상	264.60		A

*P<.05 **P<.01 ***P<.001

2) 투입변수에 따른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가족수를 제외한 주부연령, 교육수준, 총소득,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4).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았는데, Nickols등(1983)의 연구에서도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시간예산자료를 수집한Gronau(1976, 1977)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여가시간은 학령전 자녀에 의해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obinson(1977) 또한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분배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적었던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소득이 높은 집단은 가사노동을 적게하며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취업주부보다 비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는 가사노동뿐 아니라 여

가에도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투입변수에 따른 관리만족도

관리만족도는 교육수준, 총소득, 취업유무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5). 관리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았다.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취업주부는 시간제약으로 인해 적은 시간내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관리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4. 변환과정 변수와 산출변수의 관계

변환과정변수인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과 산출변수인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관리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6), 가사노동시간은 시간관리전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다. 반면 여가시간은 과정변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간계획 및

표 5. 투입변수에 따른 관리만족도

(N=448)

변 수	집 단	평 균	T 값	
취업유무	비 취 업	3.19	2.48**	
	취 업	3.07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MR
가 족 수	3명 이하	3.18	1.30	A
	4명	3.10		A
	5명	3.21		A
	6명 이상	3.15		
주부연령	30대 이하	3.14	0.09	B
	40대	3.16		A
	50대 이상	3.16		A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8	19.87***	B
	고졸	3.09		B
	대졸 이상	3.34		A
총 소 득	100만원 미만	2.85	13.12***	D
	100-150만원 미만	3.05		C
	150-200만원 미만	3.16		BC
	200-300만원 미만	3.23		B
	300만원 이상	3.42		A

P<.01 *P<.001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관리행동이 여가시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리만족도는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의 도입을 통해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이 시사된다.

5. 인과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배분 체계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표 7)의 최종 회귀분석 결과 제시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제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0078) 두 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켰으며, 개념상 여가시간은 의무적 활동과 생리적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정의되므로 여가보다 가사노동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 및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매개로한 관리만족도의 총경로효과를 보면 가족수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r = -.015$)가지고, 시간관리전략 및 가사노동시간을 통한 약한 간접효과(.11)만 있다. 교육수준의 총효과($r = .277$)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나 직접효과는 없고, 시간

표 6. 변환과정 변수와 산출변수의 상관관계

변환과정변수	산출변수	가사노동 시 간	여 가 시 간	관 리 만족도
시 간 계 획		.023	-.034	.262***
시 간관 리 전 략		-.104*	-.076	.339***

* $p < .05$ *** $p < .001$

표 7. 경로모형구성을 위한 회귀분석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시 간 계 획 $R^2 = 0.047$ $F = 22.411***$	교 육 수 준	0.047	0.219***
시 간관 리 전 략 $R^2 = 0.143$ $F = 18.445***$	가 족 수	0.043	0.149***
	연 령	0.006	0.126**
	취 업 유 무	0.127	.194***
가 사 노 동 시 간 $R^2 = 0.302$ $F = 47.336***$	시 간 계 획	0.122	.258***
	가 족 수	26.675	.166***
	연 령	-6.601	-.265***
여 가 시 간 $R^2 = 0.306$ $F = 97.483***$	총 소 득	-0.254	-.126***
	취 업 유 무	-162.627	-.446***
	연 령	4.368	.193***
관 리 만 족 도 $R^2 = .292$ $F = 26.689***$	취 업 유 무	-168.844	-.510***
	연 령	-.013	-.173***
	총 소 득	.002	.262***
	취 업 유 무	-.142	-.133*
	시 간 계 획	.116	.149***
	시 간 관 리 전 략	.534	.328***
	가 사 노 동 시 간	-.001	-.119*
여 가 시 간	.001	.176***	

** $P < .05$ *** $P < .01$ **** $P < .001$

계획을 통한 간접효과(.033)만 갖는다. 주부의 연령은 관리만족에 대해 부적 직접효과(-.173)를 갖으나, 시간관리전략과 여가시간을 매개로한 정적 간접효과(.107)를 가짐으로써 총효과는 미약해진다. 총소득은 관리만족에 정적 직접효과(.262)를 미치며, 가사노동시간을 매개로한 정적 간접효과(.

015)를 가진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킨다.

주부의 취업은 부적 직접효과(-.133)를 갖는 한편 시간관리전략과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을 매개로하는 정적 직접효과(.027)를 갖는다. 즉 취업

표 8. 관리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총경로 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효과	총 효 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시간 계획 R ² =0.0478 F=22.411***	교육 수준	.219			.219***
시간관리전략 R ² =0.143 F=18.445***	가족 수	.149**		-.003	.146**
	연령	.126**		.026	.152**
	취업유무	.194***		-.013	.181***
	시간 계획	.258	.056	.055	.259***
가사노동시간 R ² =0.302 F=47.336***	가족 수	.166		-.015	.151**
	연령	-.265		.017	-.248***
	취업유무	-.447		.006	-.441***
	총 소득	-.126		-.013	-.139**
여가시간 R ² =0.306 F=97.483***	연령	.193			.215***
	취업유무	-.510			-.519***
관리만족도 R ² =.302 F=26.689***	가족 수		-.026	.011	-.015
	교육 수준		.033	.244	.277***
	연령	-.193	.107	.078	.012
	총 소득	.262	.015	.061	.338***
	취업유무	-.133	.027	-.011	-.117*
	시간 계획	.149	.085	.028	.262***
	시간관리전략	.328		.011	.339***
	가사노동시간	-.119		.025	-.094*
여가시간	.176		.037	.21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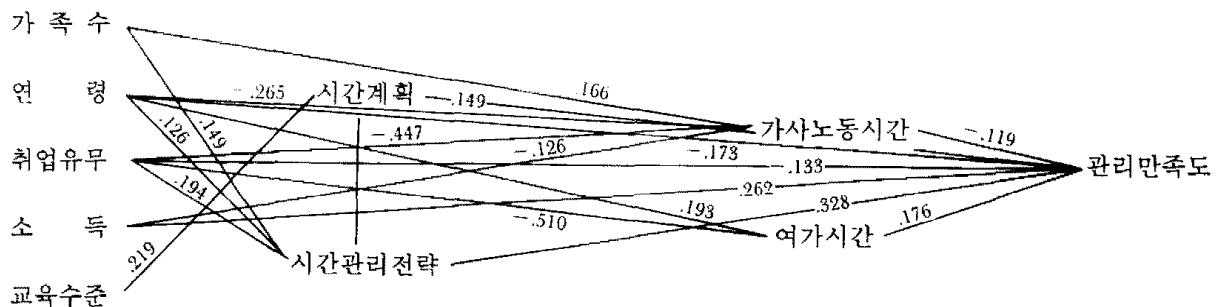


그림 2. 관리만족도의 경로 모형.

주부는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가사노동에 시간을 적게 할애하나, 여가시간이 적고 취업이 관리만족도와 부적 직접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낮아진다.

한편 시간계획은 정적 직접효과(.149)와 시간관리전략을 통한 정적 간접효과(.085)를 가짐으로써, 시간계획을 많이 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아지며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관리만족도가 증진된다. 또 시간관리전략은 정적 직접효과를 가져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

가사노동시간은 관리만족도와 부적 직접효과(-.119)를 나타내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낮아진다. 반면 여가시간은 정적 직접효과(.176)를 보여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

결과적으로 관리만족도는 주부의 취업유무, 총소득,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을 매개로 소득, 취업, 교육수준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관리만족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설명력은 30.2%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간관리전략이고, 다음으로 소득, 교육수준, 시간계획, 여가시간, 취업유무, 가사노동시간의 순이다. 따라서 소득, 교육수준, 취업유무 등 투입변수뿐 아니라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 등 매개변수와 생활시간배분 결과로 나타난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도 관리만족도 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본 결과에서 교육수준은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시간계획을 통한 간접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한 시간계획의 도입을 통해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주부의 취업은 관리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관리과정과 시간배분과정을 통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모두 갖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취업주부는 시간계약으로 인해 우수한 관리결과를 얻지 못하므로 관리만족도가

낮으나, 시간관리전략을 활용하거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관리만족도를 어느 정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소득 역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므로 관리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취업유무와 소득은 관리만족도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과 같은 관리활동은 직접, 간접으로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시간관리전략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은 관리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활동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모두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시간배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며,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시간배분을 통해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관리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투입요소는 과정변수인 시간계획, 시간관리전략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과정변수를 매개로 산출변수인 관리만족도에 직접, 간접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체계모형을 통한 각 변수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시간자원이 개개인의 시간에 대한 요구 및 자원의 보유상태에 따라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의 변환과정을 통해 가사노동 및 여가에 달리 배분되고 동시에 만족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의 배분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및 변환과정 변수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관리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월등히 적고 관리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취업주부는 취업으로 인해 타

역할수행에 많은 시간제약을 경험하며 시간제약으로 인해 우수한 관리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집단의 주부들이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도입시키며, 가사노동에 시간을 적게 사용하고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시간제약을 경험하는 취업주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들은 경제력과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취업과 소득의 영향력을 각각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계획과 시간관리전략은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과 상관관계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계획이나 시간관리전략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정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많은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습관적, 무계획적으로 수행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의해 가사노동을 전담하므로 분담화나 수행표준의 조정 등의 전략을 활용하지 못한다. 또 가사노동의 기계화나 사회화 등의 전략을 도입하는 경우 기기의 관리, 재화 및 용역의 선택을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사노동시간의 경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관리전략은 주부 개개인의 자원 및 요구에 따라 달리 선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간관리전략의 척도구성을 위해 설정한 하위영역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특히 여가 및 수면시간의 조정은 시간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라기 보다는 다른 전략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간제약에 의한 결과론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각 하위전략이 시간 제약 해소나 가사노동 경감에 기여하는 정도와 각 하위전략을 사용하는 주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총시간관리전략을 구성하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과 정교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민경애(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5-22.
- 4)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연숙(1983).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 7) 이연숙등(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8)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9)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조성은(1990).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최호숙(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한국방송공사(1981, 1983, 1985, 1987).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15) 한상순(1978).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 건국대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2, 5-37.
- 16) 홍성희(1990).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 of Consumer Research* 11 : 700-707.

- 18) Gronau, R.(1976). The Allocation of Time of Israeli Women. *J of Political Economy* 84(4), 201-220.
- 19) _____(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 of Political Economy* 85 : 1099-1123.
- 20) Hall, F.T. & Schroeder, M.P.(1970). Effects of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 of Home Economics* Vol.62, 23-29.
- 21) Nickols, S.Y. & Abdel - Ghany, M.(1983). Leisure Time of Husband and Wives. *HERJ*, 12(2), 189-198.
- 22) Reilly, M.D.(1983).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 of Consumer Research* 8 : 407-418.
- 23) Schaninger, C.M. & Allen, C.T.(1981).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 of Consumer Research* 8 : 189-196.
- 24) Strob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 of Consumer Research* 6 : 338-348.
- 25) Walker, K.E. & Woods, M.E.(1976).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AHEA.